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인(이강우), 김정태(유은자), 김춘화, 김희규, 박복례, 방원식, 송명숙, 오영순, 유승용, 윤병호(양영옥), 이복현, 이상규, 이영순, 이찬호, 이창교, 전순봉, 정영학(박은숙), 채만기(장은주), 채명엽, 채희춘, 최원지, 허복선.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경엽, 김근봉, 김기택(배숙자), 김길자, 김만형, 김명숙, 김영진, 김정환(임영미), 김희규, 박권제, 박복례, 박종삼, 손정아, 안금자, 유호근(손영화), 윤병호(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상규, 임형문, 장운주, 최봉순, 최상걸, 최정란, 현응건.

☞ 감사헌금

김경태, 김병울(이영숙), 김성찬, 김정연B, 박부웅(최귀남), 석애자, 윤승환, 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이춘호, 이춘휘, 임영자(이소미), 전영선, 정영성, 주성탁, 채명엽, 최지원, 황영옥, 김경민.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레,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청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명숙,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철아, 이옥남, 이민숙, 정옥순, 주성탁, 최봉순, 황영옥, 김민혁, 무 명.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51주 : 요한2서 1장 - 요한계시록 20장			
주 일	요한2서 1장 - 요한계시록 2장		
월요일	요한계시록 3 - 5장	목요일	요한계시록 12 - 14장
화요일	요한계시록 6 - 8장	금요일	요한계시록 15 - 17장
수요일	요한계시록 9 - 11장	토요일	요한계시록 18 - 20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애덴 : 최원지		앤 켈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해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슬리스트	김안나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이집트: 김진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옥		A X 국: 김해월		
		A X 국: 박동권 김명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태 국: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용정선교회					

2014. 12. 14 주일 예배 설교



외모만 보지 말라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7절

설교 : 이진우 목사

사람은 외모를 보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실함이나 사람 됨됨이 보다는 먼저 첫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며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마음을 보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되어 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예수를 좇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진실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과연 외모만 본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1) 참 사람의 마음을 볼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 연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즉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 리는 그러한 마음을 볼 줄 모릅니다.

2) 또 신앙을 볼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습 니다. 그러나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지혜는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눈은 무엇이 참 신 앙인지 무엇이 거짓 신앙인지조차도 구별할 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3) 미래를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다 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참 흔해도 혼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н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참 마음도 보지 못하고, 신앙을 보지도 못하며 삶의 그 앞날도 보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 만으로 판단하고 행하여 결국 사람을 편애하고 신앙을 편애하여 오해와 갈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 하시고 은혜주시며 구원하사 생명에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그 중심, 사람 의 마음을 보시고 신앙을 보시며 그 삶의 모든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외모만 보고 있습니다.

2. 이렇게 외모만 볼 때 불행이 생겨납니다.

1) 보여 지는 외모만을 중시할 때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행이 생겨납니다. 인생에서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동업자를 만나야 하며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기준이 그저 눈에 좋은 것, 혹은 보여 지는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것 으로 착각합니다. 눈에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2) 이렇듯 보여 지는 외모만을 중시할 때 일의 진위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여 불행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외모에 이끌리게 되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 지는 것만을 따라 가면 실패합니다. 그 숨은 진정한 뜻을 찾아야 하며 바른 판단을 위하여 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3) 진리의 여부를 가려야 할 때 보여 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에 대하여 는 담대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라면 모든 자들이 “예”라 할 때 “아니오”라 할 수 있 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혹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 할 때 “예”라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 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저 다수를 따 라가는 것이 진리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마태 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 했습니다.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여 많은 사 람을 따라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살 아가는 성도는 참 신앙의 눈으로 외모만 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어떻게 해야 외모만 보지 않고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1) 자기의 눈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내 뜻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마 7:1~2, 롬 6:37).

2) 또 바로 볼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해야 합니다. 삼고한다는 말은 헬라어 “아나크리네스”인데 이 뜻은 “질문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삶으로 말씀을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 보며 말씀을 기준삼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3) 더 나아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 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외모만 보지 않고 참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적 눈이 열림을 통 하여 외모만을 보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SINCE 1975-2014

No. 40 - 51

2014. 12. 2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 마길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 2689-1230
- 홈 페 이 지 :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시온찬양대 칸타타”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1시 30분

묵도

(Silent Prayer)

사회: 임 만 순 장 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시 온 찬 양 대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621장

다 갈 이

(Praise)

찬양하라 내 영혼아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홍 정 훈 집 사

(2부) 임 만 순 장 로

(Prayer)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2장 14절(신약 P.89)

유 은 자 권 사

(Scripture)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 200장)

다 갈 이

(Anthem)

설 교

평화(Pax)? 평화(εἰρήνηνω)!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 시온찬양대 칸타타 -

“크리스마스를 노래하자”

(Joseph M. Martin & Michael Barrett 곡, 홍정표 역)

찬 양

찬송가 122장

다 갈 이

(Praise)

참 반가운 성도여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부] 찬송가 351장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2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윤 조 훈 장 로

묵도

다 갈 이

할렐루야찬양대

성 경

시편 136편 1-2절

사 회 자

간 구

다 갈 이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갈 이

기 도

최 성 현 집 사

성 경 봉 독

잠언 9장 13-18절(구약 p.920)

사 회 자

찬 양

다 갈 이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다 갈 이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갈 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남전도회 주최

“성탄전야 행사 및 주일학교 발표회”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30 재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유 처 부	주 일 오전 10:00 재교육관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9:30 유초등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0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템나무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소 방 부 (경로대학)	토요일 오전 10:30 재교육관
전도팀모임	목요일 오후 2:00 재교육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소식

◎ 광고

[시온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

오늘(21일) 2부예배 시 “시온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습니다.

[남·여전도회 총회 결과]

베드로 회장: 윤병호 장로

바울 회장: 최상걸 집사

요한 회장: 조성호 집사

사라 회장: 신영신 권사

한나 회장: 어기자 권사

드보라 회장: 임영득 권사

에스터 회장: 서영숙 집사

루디아 회장: 김명숙 집사

마리아 회장: 강소영 집사

[남전도회 주회 성탄전야 행사 및 주일학교 발표회]

24일(수) 오후 7시, 본당에서 남전도회 주회 “성탄전야 행사 및 주일학교 발표회”가 있습니다.

[성탄절]

25일(목)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할렐루야찬양대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11시 30분 예배만 있습니다.

[교사총회]

교사 총회가 25일(목)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회 속회]

당회가 정회로 인하여 다음 주일(28일) 찬양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속회합니다. (안건은 2015년도 예산, 조직의 건입니다.)

[송구영신예배]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수) 오후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2014년도 헌금 작성]

다음 주일(28일)에는 “2015년도 헌금 작성”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입구에 있는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성단·차·중식집대 신청]

2015년도 성단·차·중식집대를 사랑으로 성길 분들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란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사업]

오늘(21일) 각 여전도회에서 떡국용 떡을 선착순 판매합니다. 한 봉지에 1만원입니다.

이 번 주	다 음 주
* 남전도회 월례회(2부예배 후) * 교육위원회(찬양예배 후/로템나무) * 성탄전야 준비모임(오후 2시/로템나무) * 교사총회(25일 오후 1시/본당)	* 교구위원회 총회(2부예배 후/본당) * 찬양위원회(찬양예배 후) * 당회 속회(찬양예배 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김춘화 집사	설미영 집사	이기자 권사/ 강은미 집사	유육자 권사	총성1 목동 총성2 평촌안산전만	베드로 남전도회
	* 떡은 박종삼 집사, 이명원 권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모친 故 최수남 성도 장례).					
성탄절	천세력 장로	염영분 권사	유육자 권사/ 이연숙 권사		믿음1 신도림 개봉1 믿음2 등촌	
다음주	최선미 사모	김민성 학생	최선미 사모	박금옥 권사	믿음2 부천2 믿음3 광명	바울 남전도회

◎ 교우소식

*故 최수남 성도(박종삼 집사, 이명원 권사 모친) 12월 14일(주일) 소천, 16일(화) 장례

* 김두산 집사, 조윤주 성도(사랑2 개봉4 목장) 12월 20일(토) 득남

12월	순 서	1 부	2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 회	기 도	기 도	기 도
1주(7일)	장윤주 집사	최기훈 장로	박현숙 권사	정기성 장로	박종삼 집사	이강우 집사	
2주(14일)	박부웅 집사	배경철 장로	이향교 권사	윤병호 장로	이기자 권사	이미영 집사	
3주(21일)	홍정훈 집사	임만순 장로	유은자 권사	윤조훈 장로	최성현 집사	성탄전야행사	
성탄절(25일)	이일로 장로						
4주(28일)	윤영준 집사	정기성 장로	김해숙 권사	이일로 장로	박부웅 집사	이인숙 집사	
예배안내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명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